

중국 대륙 조선족 파룬궁수련생은 자비하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새해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하면서 큰절을 올립니다!



조선족 파룬궁수련생은 전국 조선족 중생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전염병 위기에서 성심성의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편산런하오 (真善忍好)!'를 넘하고 평안을 보전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식구들이 성심껏 '구자진언'을 읽어 외손녀는 두번 고열의 위험에서 벗어나다

[명후이왕] 외손녀 깡콩이는 행운스러운 아이다. 비록 6살 어린나이밖에 안되지만 이미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편산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이 '구자진언'의 위력을 직접 체험했기에 '구자진언'을 아주 즐겨 읽는다. 스스로 어디 아파도 읽고, 어른이 불편해 해도 빨리 읽으라고 일깨워 준다. 깡콩이는 두번의 위험을 경험했다.

1 깡콩이 두살이 안되었을 때 우리는 외지에서 온 친척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집에 돌아온 후 아이는 정상으로 잠을 잤다. 밤 12시 좌우 아이 엄마는 무의식간에 아이의 이마를 만졌는데 아주 뜨거운 것을 발견했다. 불을 켜고 보니 아이의 눈길은 굳어졌고, 이미 혼미상태에 빠졌다. 체온을 재보니 40도였고 해열제 마저 넘길수 없게돼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 우리집은 병원과 멀리 떨어

진 곳에 있는데다 깊은 밤중에 택시를 잡기도 어렵고 길에서 지체될까 두려운 아이엄마는 아이를 안고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부님께 깡콩이를 구원해 주시길 청하고 한편으로는 '구자진언'을 성심껏 읽었다. 얼마안돼 아이는 깨어났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아울러 다시는 발열하지 않았다.

2 2019년 가을, 깡콩이 4살 전의 일이다. 지난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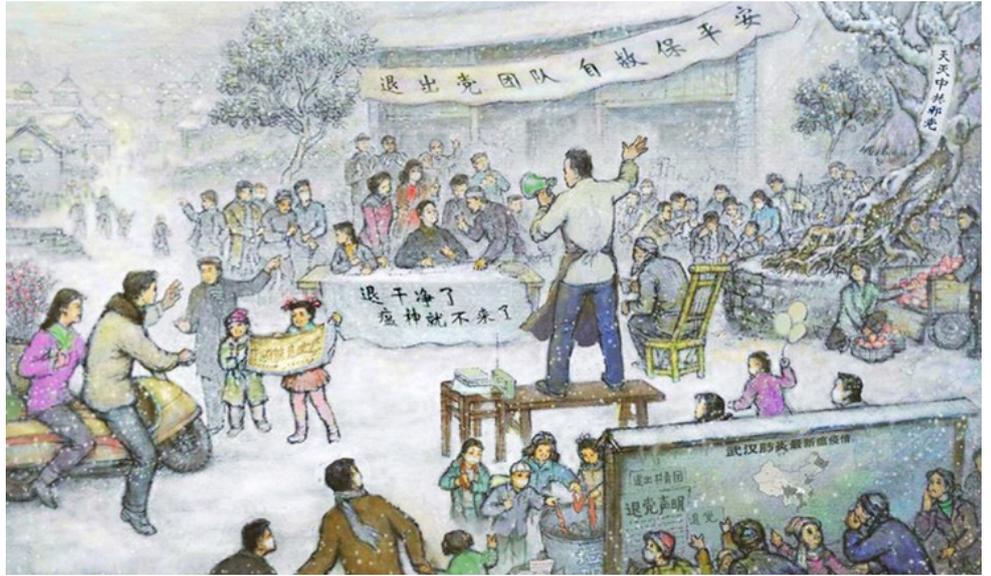
무한에 파견된 안전 유지 공무원이 들려준 진상

[밍후이왕] 한 정치법률계 통 고위직 간부가 대법제자에 게서 파룬궁 진상을 들은 후, 무한으로 파견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러 갔다. 그는 중공 간부가 무한의 한 소구역을 시찰할 때 거주민들이 “가짜야! 가짜야!” “모두 가짜야!”라고 외쳤고 그당시 그도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무한에 있는동안 그는 각급 공무원의 부패와 무능함,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허위 날조하는 행태를 보았다.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본 그는 공산당에 대한 최후의 희망마저 잃게 됐다. 그와 상반되게 파룬궁 수련생들은 역병 중에서 사람을 구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그는 파룬궁에 대해 의심을 버리게 됐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무한 부근의 한 마을에는 무한폐렴에 감염된 사람이 적지 않은데, 전면 봉쇄로 마을 사람들이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의료진도 없어 감염자가 날로 늘어났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한 곳



▲대륙의 모 촌에서는 촌장의 이끌음 하에 전촌 사람 모두 중공의 당단 대조직에서 퇴출했다. 그들은 중공의 사한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촌장은 “깨끗이 퇴출하면 전염병신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으로 불러모아 큰소리로 함께 외치게 했다.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이 아주 빨리 회복됐고, 더는 감염되는 사람도 없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무사했다.

이 정법간부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동향을 요해하기 위해 나도 파룬궁

사이트를 경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에 파룬궁에서 발생한 신기한 사례를 경험한적이 없었기에 밍후이왕에서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았었는데 저는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일부 무한 거주민이 병독에 감염되었는데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 (真善忍好)’ 만 외우고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1 면의 계속) 번의 발열을 겪고 나서 우리는 은근히 일종 고려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바로 또 발열할까 두렵고 무서워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깜공이가 조금 발열하자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가서 링겔을 맞혔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지 얼마안돼 깜공이는 발열로 또 혼미상태에 빠졌고,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물기 시작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심각했다. 당시 상황이 너무 긴급했기에 아이 아빠도 어쩔바를 몰라 맘돌았다. 방금 병원에서 돌아온 우리는 오직

사부님께서만이 아이를 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인식했다. 우리는 사부님께 아이의 구원을 청하고나서 높은 소리로 부단히 ‘구자 진언’을 성심껏 읽었다. 아이 아빠는 수련하지 않지만 아이가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잘못될까 두려워 눈물을 흘리면서 사부님께 아이를 구해 달라고 빌었다. 아이 아빠는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친히 ‘구자 진언’을 성심껏 읽는 과정에 아이의 고열이 즉각 내리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견증했기에 격동된 나머지 “오늘 사부님께서 우리 딸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무서운 일을 처음 겪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사부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려 사부님께 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현재 인류는 전염병의 위기에 빠졌다. ‘구자 진언’은 대법 사부님께서 중생에게 주는 명을 구할 수 있는 보물이다. 당신은 꼭 기억하고, 성심껏 읽어 따라서 겁난을 지나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무한 폐렴에 걸린후 ‘구자 진언’을 넘해 병이 낫다

오스노 가드는 뉴욕에 사는 유태인 보석상이다. 전세기 60년대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녀는 가족보석장사의 주관이며 올해 73 세로 매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수석과 기이한 보석 등 장식 재료를 찾는다.

3월 12일, 그녀의 남동생 일가족은 맨해튼과 롱아일랜드에서 주말을 보냈다. 동생 일가족이 떠난지 일주일 후 그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입안에서 금속 냄새 말고는 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후에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때 사람들은 무한 폐렴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다지 많이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미각을 잃는 증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3월 21일, 그녀는 차를 몰고 사우샘프턴 병원에 갔다. 의사는 그녀에게 폐렴 증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서 자가

격리하고, 4시간마다 해열제를 복용하라고 말했다.

가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집에서 자가 격리했다. 건강은 좋았다 나뻐다 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점차 호흡이 곤란해졌고 온몸이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가드는 “숨을 쉴 수 없었고... 말도 하지 못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라고 말했다. 가드는 “혼자 있으면서 옆에 가족이 없을 때 숨을 쉴 수 없다는 공포는 아주 컸어요. ...이 병독은 사람을 세상과 격리하고, 고독의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반드시 혼자서 이 병을 감당해야 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요.”라고 했다.

4월 23일, 가드의 친구인 파룬궁 수련생 애나루이스는 ‘구자 진언’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眞善忍好)

를 외워보라고 권하였다.

천천히 한마디씩 ‘구자 진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호흡이 돌아왔고, 3일 만에 정상인처럼 부드럽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가드는 ‘구자 진언’을 외우면서 중공 폐렴 증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심장병 및 기타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1년 전에 혈관 조영수술을 받고 나서 심장 박동수가 분당 44~46(정상치는 60~100)이었는데 지금은 50~54가 됐다.

현재 가드는 매일 “구자 진언”을 외운다고 했으며 “잠자기 전이나 깨어있을 때, 길을 걸을 때, 졸지 않은 생각이 들 때, 우울할 때, 이 진언을 외워서 지난 2~3주 동안 회복됐어요. 파룬따파가 저를 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전에는 기적을 믿지 않았는데, ‘구자 진언’을 외우는 것은 확실히 제 에너지 수준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지금 그녀는 활력이 넘쳐 매일 2키로미터를 걷고 일상적인 일도 다시 시작했다.

“저는 파룬따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정말 반드시 파룬따파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애나에게 고마워요. 신께서 그녀와 파룬따파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만명 ‘삼퇴’ 명단 배후에

[밍후이왕] 공포와 고통속에서 2020년을 보낸 사람들은 이때 새해의 평안을 더욱 기대한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새해의 종소리가 울리기도전에 전문가들의 말그대로 제 2차 전염병이 잇따라 왔다.

12월 21일, 영국은 전염성이

더욱 강한 무한 폐렴 변이 신종 코로나병독에 대해 이미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29일, 단 하루만에 감염자 수 5만명 선을 돌파해 전염률은 이미 4월 역병고봉기를 초과했다.

2021년 1월 1일, 중공자신도 중국 대륙에 이미 34개 지역

이 역병 소위 “중 위험구역”이라고 전했다. 소구역이 봉쇄되고, 일상 기본공급이 중단돼 민중들은 “물품을 달라, 밥을 달라!”고 소리쳤다.

이 겁난은 어찌하여 왔는가? 사람들은 1년간의 사고를 거쳤고, 특히 많은 파 (4면에 계속)

(3면의 계속) 룬궁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도와 이런 의문을 풀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한차례 역병에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파룬궁수련생들은 납치 될 위험, 불법감금 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중의 중생에게 대량의 진상자료를 전달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중의 원인을 알게해 대법(大法)의 구도를 받게했다.

사실이 증명하다 싶이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넘하는 것은 가장 효력이 있는 명을 보전할 수 있는 법보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해외에서 전해지고 있는 <코로나 병독 백신연발의 곤경과 출로에 관한 사고>란 논문에서 36개 안례로 예를 들었다. 그중 안례 17: 한 집에서 형제 두명이 무한 폐렴에 감염됐다. 그들은 온 집안 20여명 식구와 함께 매일 식사를 하여 밀접히 접촉했다. 두 형제가 확진받은 후 온 집 식구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다. 후에 친구의 소개로 온 집 식구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넘했는데 모두 무사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다. 이 논문에서 수집한 것은 단지 그중 작디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20년이래 명절이 다가올때마다 복보를 받은 사람들은 분분히 리홍쯔(李洪志) 대사님께 축하카드와 편지를 보냈으며 자신이 복보 받은 이야기를 서술했다. 금년 원단 민중들이 보내온 축하카드는 왕년에 비해 한배 더 증가했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왜 자신이 엄중한 박해속에서도 21년간을 견지하면서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는지를 응당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희망의 씨앗을 전파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상을 명백히 알아야



만이 난세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정확한 선택을 해 평안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미 3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체 재난의 근원은 서방에서 온 유령_공산사령(共产邪灵)이라는 것을 알고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해 사당과의 관계를 탈리했다.

이와 동시에 위험한 시각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명을 보전하고, 평안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되고, 판결받고, 심지어 가정이 흩어지고 사람이 죽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알려 사람을 구하는 발걸음은 하루도 정지하지 않았다. 아래에 만명 ‘삼퇴’명단 배후의 이야기를 말하려 한다:

80대인 헤렌(가명)은 파룬궁수련생이다. ‘9평 공산당’이 발표된 후, 노인은 엄동설한 이든, 햇빛이 짹짹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이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막론하고 줄곧 밖에 나가 진상을 알렸다.

노인은 차를 탈때 거리에서 걷고있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그들을 구할 수 없어 마음이 아주 괴로웠다고 하셨다. 또 진상을 알려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을 보면, 특히 많은 대학생과 일부분 공, 검, 법 인원이 ‘삼퇴’하고 격동되는 모습을 보고 신심을 가진다고 하셨다.

노인은 현재까지 자신이 진상을 알려 ‘삼퇴’한 사람만 해도 이미 1만명이 넘는다면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더 많고, 또 많은 대학생들도 있다고 하셨다.

사람 구하기를 견지하기 위해 노인은 7번이나 악당 인원에게 납치되고, 불법 집 수색을 당했을 뿐만아니라 악당은 그의 자녀의 돈까지 강탈해갔다. 이에 친인들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하에서 파룬궁을 오해하고 노인을 원망하는 바람에 노인 또한 심리상 많은 압력을 받게됐다. 이 때문에 노인의 마음은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고, 심지어 때로는 혼미하여 병원으로 호송된 적도 있다. 출원한 후 노인은 여전히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거리에 나가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했다.

노인은 가장 곤란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면서 엄동설한에 밖에서 진상을 알릴때면 아주 추운데 특히 발이 얼어들어 어느 한해는 솜신발을 몇켤레나 바꿔도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소변이 빈번해지는데 밖에서 진상을 알릴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점이라고 하셨다. 늘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집으로 향할수밖에 없었는데 때로는 집에 도착하기도전에 벌써 솜바지를 적실때도 종종 있었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노인은 종래로 포기하지 않았다.

선량한 사람들이여! 당신과 집 식구들의 평안을 위해 이지와 선심으로 파룬궁수련생이 알리는 진상을 열심히 들어보고 위험앞에서 잊지말고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넘하기를 바란다.